

# 2023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24년 1분기 전망

I. 2023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24년 1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작성

수석연구원 김윤지 (02-6252-3607)





## <요 약>

### I. 2023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 2023년 4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5.8%, 전기 대비 7.1% 증가

- 2023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590억 달러) 대비 5.8% 증가, 전분기(1,571억 달러) 대비로는 7.1% 증가한 **1,682억 달러**
- 2022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했으나, **반도체·선박·석유화학** 등이 개선되면서 5분기만에 분기 기준 증가세로 전환
-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15대 주력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아세안** 등이 증가
- 2023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6,324억 달러

#### 2023년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2p 상승

- 전기 대비 유가 및 생산자물가 등이 하락하면서 **수출채산성** 평가가 상승하고, **수출물량** 평가도 상승해 전반적인 수출업황 평가 상승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1				'22				'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업황 평가지수	104	99	94	101	93	94	90	91	88	92	89	<b>91</b>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7	96	95	100	90	94	92	91	88	92	89	<b>93</b>
수출단가 평가지수	111	116	118	116	125	119	115	105	105	100	103	<b>100</b>
생산원가 평가지수	127	133	132	133	144	135	129	117	114	108	113	<b>108</b>
수출물량 평가지수	108	103	98	107	97	97	89	91	83	93	88	<b>91</b>
자금사정 평가지수	101	97	96	99	93	94	93	96	94	97	95	<b>95</b>

- 수출업황 평가는 기계류,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해운 등은 상승, 전기전자, 플랜트/해건 등은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는 해운, 선박, 철강/비철, 석유화학 등은 상승, 신재생에너지, 기계류 등은 하락
- 수출물량 평가는 선박, 플랜트/해외건설, 석유화학 등은 상승, 섬유류, 기계류 등은 하락

####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금속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플랜트/해건	신재생에너지	선박	문화콘텐츠	해운	대기업	중소기업
'23.3Q	95	89	90	89	88	76	98	86	88	105	97	95	89
'23.4Q	<b>91</b>	<b>90</b>	<b>90</b>	<b>91</b>	<b>94</b>	<b>76</b>	<b>96</b>	<b>90</b>	<b>97</b>	<b>95</b>	<b>100</b>	<b>96</b>	<b>90</b>



## II. 2024년 1분기 수출 전망

###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5p, 전기대비 1.8p 하락

- '24년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2.3으로 전년동기 대비 1.5p, 전기 대비 1.8p 하락
- 하락세를 보이다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상승했던 수출선행지수가 다시 소폭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면서 수출 경기 전환을 위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

###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2				2023				202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선행지수	124.1	126.1	129.0	128.8	123.7	122.0	122.7	124.1	<b>122.3</b>
전년동기대비 증감(p)	16.8	14.6	10.7	5.8	△0.4	△4.1	△6.4	△4.7	<b>△1.5</b>
전기대비 증감(p)	1.2	2.0	2.9	△0.3	△5.0	△1.7	0.7	1.4	<b>△1.8</b>

### 미·중 경기는 회복세, 제조업신규주문은 보합세 등 지표 혼재, 경기 바닥 다지기 진행 중

- **수출대상국 경기** : 독일·일본 경기둔화는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영국 등은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도 회복세가 유지돼 전체 수출대상국 경기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은 확대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2.2('23.1Q)→3.6(2Q)→4.7(3Q)→**5.1(4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0.8p) 하락한 47.0 기록, 하반기 이후 월별 등락을 거듭하면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47.2('22.4Q)→44.60('23.1Q)→44.63(2Q)→47.8(3Q)→**47.0(4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수출 물량 개선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8.9% 상승, 전년동기 대비로는 7.5% 하락했으나 하락폭 축소
- **가격 경쟁력** : 10월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1,361원) 수준으로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4분기 평균 환율은 전 분기(1,311원)보다 **0.8% 상승한 달러당 1,321원 기록**, 가격 경쟁력은 높은 상황
-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국내 증시 위축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높은 상태 유지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359('23.4Q)→1,276('23.1Q)→1,315(2Q)→1,311(3Q)→**1,321(4Q)**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286('23.7)→ 1,319(8)→ 1,330(9)→ **1,351(10)→ 1,310(11)→ 1,304(12)**



- **수출물가** : 유가가 전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물가도 하락하겠으나, 반도체 단가 상승 전환 등으로 하락폭은 제한될 전망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04.0('22.4Q)→102.8('23.1Q)→99.6(2Q)→100.6(3Q)→**100.3(4Q)**

- **D램**은 주요 업체의 감산 및 수요 증가 영향으로 4분기부터 가격 반등이 시작됐으며, 2024년에는 모바일 D램을 비롯해 주요 기업 투자 물량도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평균판매가격, Omdia) : 1.55('23.2Q)→1.47(3Q)→1.56(4Q)→**1.56P('24.1Q)**

-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상승 요인과 수요 둔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공존하면서 배럴당 70달러대 수준에서 보험세 유지

※ 유가(Dubai, \$/bbl, 기간평균) : 80.5('23.7)→86.5(8)→93.3(9)→**89.8(10)→83.6(11)→77.3(12)→77.7('24.1.19)**

- **주요 산업** : 반도체는 지연됐던 기업 투자 수요가 살아나면서 단가 상승이 이어지고, 자동차·선박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요 산업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반도체**는 낸드플래시는 회복세가 더디나 모바일·PC 시장에서 재고 비축이 재개되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DDR5 등 고부가가치 D램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폭 확대 전망

### 2024년 1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 전망

-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 대비 감소폭이 2분기 연속 축소되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2024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 전망

- 수출액은 전분기와 유사한 1,650억 달러 내외 수준이겠으나, 수출액이 크게 하락했던 2023년 1분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은 확대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1,590('22.4Q)→ **1,512('23.1Q)**→ 1,558(2Q)→ 1,571(3Q)→ 1,682(4Q)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10.0('22.4Q)→ **△128('23.1Q)**→ △120(2Q)→ △9.7(3Q)→ 5.8(4Q)

- 다만,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러·우 전쟁·중동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 폭 축소 가능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원화환율 불안정'(42.0%),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감소'(35.6%) 응답 최대

-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원화환율 불안정**'(39.8%→42.0%) 응답이 전기 대비 **2.2%p** 상승하며 최대 비중 차지
-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감소**'(32.7%→35.6%) 응답률도 전기보다 2.9%p 증가하며 두 번째로 많이 응답, '**원재료 가격 상승**'(39.8%→29.4%)은 전기보다 응답률이 감소했으나 4번째로 많이 응답



## I. 2023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 2023년 4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5.8%, 전기 대비 7.1% 증가

- 2023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590억 달러) 대비 5.8% 증가, 전분기(1,571억 달러) 대비로는 7.1% 증가한 **1,682억 달러**
- 2022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했으나, **반도체·선박·석유화학 등이 개선되면서** 5분기만에 분기 기준 증가세로 전환
- 월간 기준으로는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무역수지도 6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기록
-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15대 주력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아세안** 등이 증가
- 2023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6,324억 달러

####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액	1,464	1,567	1,645	1,767	1,734	1,771	1,740	1,590	1,512	1,558	1,571	<b>1,682</b>
증감률(%)	12.5	42.0	26.5	24.5	18.4	13.0	5.8	△10.0	△12.8	△12.0	△9.7	<b>5.8</b>
수출물가지수	99.8	107.0	110.4	110.6	112.6	117.1	109.4	104.0	102.8	99.6	100.6	<b>100.3</b>
증감률(%)	8.7	22.3	22.0	18.1	12.8	9.5	△0.9	△6.0	△8.7	△15.0	△8.0	<b>△3.6</b>
수입물가지수	107.4	113.6	119.1	123.4	131.5	136.7	128.0	122.2	121.7	115.8	116.5	<b>116.3</b>
증감률(%)	7.9	24.8	26.1	26.3	22.4	20.3	7.5	△1.0	△7.4	△15.3	△9.0	<b>△4.8</b>
수출물량지수	116.4	118.5	119.9	126.6	124.3	121.1	124.8	119.8	118.3	122.6	123.7	<b>128.3*</b>
증감률(%)	5.0	19.4	4.9	4.5	6.8	2.2	4.1	△5.4	△4.9	1.2	△0.9	<b>7.1</b>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입물가지수(달러화 기준) 및 수출물량지수는 2015=100

\* 2023년 4분기 수출물량지수는 10~11월 평균



## 반도체 업황 개선, 자동차 호조세 지속 및 선박 수주 물량의 수출 본격화

- **반도체(+10.4%)**는 고성능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업황이 개선되면서 4분기부터 단가도 상승해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한 295억 달러 기록, 2022년 2분기 이후 6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  
 ※ D램가격(\$, DDR4\_8Gb, 평균판매가격) : 2.20('22.4Q)→1.82('23.1Q)→1.55(2Q)→1.47(3Q)→**1.56(4Q)**
- **석유화학(+2.0%)**은 유가 안정세로 단가는 하락했으나 '23년 새로 증설된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서 생산량이 늘어 수출도 6분기만에 증가 전환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4.9('22.4Q)→80.3('23.1Q)→77.8(2Q)→86.8(3Q)→**83.5(4Q)**
- **일반기계(+8.7%)**는 미국, 중남미, 중동 등지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로 3분기 연속 수출 증가
- **자동차(+19.7%)**는 단가가 높은 전기차·하이브리드카 등과 같은 친환경차 및 SUV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1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기록
- **선박(+60.5%)**은 21년도 수주 물량의 생산·수출 본격화, 컨테이너선·LNG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60.5% 증가  
 ※ 선박 수주액(조원) : 23.9('18)→ 23.5('19)→ 19.0('20)→ **40.5('21)**→ 46.9('22)
- **이차전지(+1.7%)**는 글로벌 기업 배터리 재고 조정,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및 투자 속도 조절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세 축소

##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2. 1/4	2/4	3/4	4/4	'23.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반도체	29.0	13.6	△3.9	△25.8	△40.0	△34.8	△22.6	<b>10.4</b>	△3.1	12.9	21.8
석유화학	27.6	6.9	△9.7	△25.1	△22.4	△24.3	△13.8	<b>2.0</b>	△3.4	5.8	3.9
일반기계	11.5	0.3	0.2	△3.1	△2.0	5.6	6.7	<b>8.7</b>	10.5	14.0	2.2
자동차	△0.4	6.8	31.2	29.0	43.9	49.0	17.1	<b>19.7</b>	19.8	21.5	17.9
석유제품	91.1	90.9	78.3	18.0	△0.5	△34.8	△27.4	<b>2.6</b>	18.0	△14.4	△3.5
선박류	△45.3	△6.7	6.3	△22.5	0.6	21.7	△4.0	<b>60.5</b>	101.4	38.4	47.2
이차전지	11.6	8.1	25.5	15.1	10.8	2.2	△17.9	<b>1.7</b>	△14.5	23.4	△1.0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 경기 양호한 미국·아세안 수출 증가, 일부 품목 생산 회복세인 중국은 수출 감소폭 축소

- **중국 수출**(△4.4%)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일반기계, 철강 수출 부진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감소세 지속, 중국내 전기차·가전 등 일부품목 생산 회복세로 수출 감소폭은 축소
- **미국**(+20.9%)은 자동차, 일반기계 및 이차전지 수출 호조 지속 등으로 수출 증가폭 확대
- **아세안**(+8.1%)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무선통신기기 수출 등은 감소되고 있으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출 등이 개선되면서 수출 증가세 전환
- **EU**(△9.7%)는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 둔화, 건설시장 위축 등으로 철강, 일반기계 수출 등이 줄어들면서 수출 감소폭 확대
- **인도**(+8.9%)는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요 증가, 반도체 수출 개선 등으로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2. 1/4	2/4	3/4	4/4	'23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중국	15.5	△1.0	△4.9	△22.9	△29.7	△22.2	△20.8	<b>△4.4</b>	△9.6	△0.2	△2.9
미국	13.9	22.2	15.2	6.9	3.4	△2.6	0.9	<b>20.9</b>	17.3	24.7	20.8
일본	15.1	8.9	0.0	△14.0	△10.4	△11.3	△5.0	<b>8.2</b>	10.3	11.4	3.7
아세안	38.4	26.1	15.4	△12.5	△19.3	△22.0	△14.1	<b>8.1</b>	14.3	8.6	1.7
EU(27)	5.9	10.2	7.2	5.0	3.6	7.7	△0.3	<b>△9.7</b>	△10.7	3.6	△20.0
중동	24.4	16.2	10.7	1.6	15.5	14.0	0.5	<b>0.0</b>	9.0	△7.2	△0.9
인도	11.0	33.0	39.8	1.9	4.7	△12.1	△16.6	<b>8.9</b>	9.1	10.8	7.0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 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입물가 전기 대비 하락, 전년동기 대비 하락폭은 축소

- 4분기 **수출물가**(달러화 기준)는 유가 하락 영향으로 원유정제처리제품 단가 등이 하락하면서 전기 대비 **0.3% 하락**, 전년동기 대비로는 **3.6% 하락**했으나 하락폭 축소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4.9('22.4Q)→80.3('23.1Q)→77.8(2Q)→86.8(3Q)→**83.7(4Q)**

- 반면 **반도체**는 단가 상승에 힘입어 전기 대비 **11.0% 상승**, 전년동기 대비로는 **15.5%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전기 절반 수준으로 축소

- **수입물가**(달러화 기준)도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전기 대비 **3.1%**, 전년동기 대비 **8.4%** 하락한 영향으로 전기 대비 **0.2% 하락**, 전년동기 대비로는 **4.8% 하락**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가. 전체 수출업황

2023년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2p 상승

- 2023년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2p 상승, 전년동기와는 동일 수준인 91
- 전기 대비 유가 및 생산자물가 등이 하락하면서 수출채산성 평가가 상승하고, 수출물량 평가도 상승해 전반적인 수출업황 평가 상승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 물가 하락으로 수출단가 평가(전기 대비 3p↓)가 하락했지만,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생산원가 평가(전기 대비 5p↓)가 더 크게 하락해, 종합적인 수출채산성 평가는 전기 대비 4p 상승한 93
- (수출물량 평가지수) 무역량 회복세에 힘입어 4분기 수출 물량이 상승하면서 전기 대비 3p 상승한 91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기와 동일 수준인 95 기록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1				'22				'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업황평가지수	104	99	94	101	93	94	90	91	88	92	89	91
수출채산성평가지수	97	96	95	100	90	94	92	91	88	92	89	93
수출단가평가지수	111	116	118	116	125	119	115	105	105	100	103	100
생산원가평가지수	127	133	132	133	144	135	129	117	114	108	113	108
수출물량평가지수	108	103	98	107	97	97	89	91	83	93	88	91
자금사정평가지수	101	97	96	99	93	94	93	96	94	97	95	95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나. 규모별 · 산업별 · 수출 지역별 수출업황

기업규모별 : 대기업(95→96), 중소기업(89→90) 모두 전기 대비 상승

- 수출업황 및 수출채산성, 수출물량 모두 대기업, 중소기업의 평가가 전기 대비 상승했으며, 생산원가, 수출단가 평가도 모두 하락





**산업별 : 선박(88→97), 자동차(88→94), 신재생에너지(86→90), 석유화학(89→91) 등 업황 평가 상승, 전기전자(95→91), 문화콘텐츠(105→95) 등은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는 해운(84→100), 선박(85→98), 철강/비철금속(86→95), 석유화학(89→96) 등은 상승, 신재생에너지(100→95), 기계류(93→90) 등은 하락
- 수출물량 평가는 선박(83→102), 해외건설/플랜트(86→102), 석유화학(84→96), 자동차(88→96) 등에서 상승, 문화콘텐츠(100→90), 섬유류(78→72), 기계류(89→86) 등은 하락

**수출지역별 : 동남아(86→93), 중국(88→89) 등은 업황 평가 상승, 북미(91→89) 등은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는 동남아(84→96), 중남미(94→104), 유로존(89→95), 일본(87→91), 북미(90→91) 등은 상승, 중국(90→89), 중동(100→93)은 하락
- 수출물량 평가는 동남아(81→93), 중남미(97→107), 유로존(88→92), 중국(89→90) 등 북미(89→89)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3. 3/4	4/4	'23. 3/4	4/4	'23. 3/4	4/4
전 체		89	91	89	93	88	91
규모	대 기 업	95	96	93	96	98	100
	중 소 기 업	89	90	89	93	86	90
산업	전 기 전 자	95	91	94	92	90	89
	기 계 류	89	90	93	90	89	86
	철 강 / 비 철 금 속	90	90	86	95	88	89
	석 유 화 학	89	91	89	96	84	96
	자 동 차	88	94	89	94	88	96
	섬 유 류	76	76	78	76	78	72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98	96	93	100	86	102
	신 재 생 에 너 지	86	90	100	95	91	100
	선 박	88	97	85	98	83	102
	문 화 콘 텐 츠	105	95	95	95	100	90
	해 운	97	100	84	100	97	109
수출 지역	북 미	91	89	90	91	89	89
	중 국	88	89	90	89	89	90
	일 본	89	89	87	91	88	90
	유 로 존	90	94	89	95	88	92
	동 남 아	86	93	84	96	81	93
	중 남 미	94	100	94	104	97	107
	중 동	91	79	100	93	91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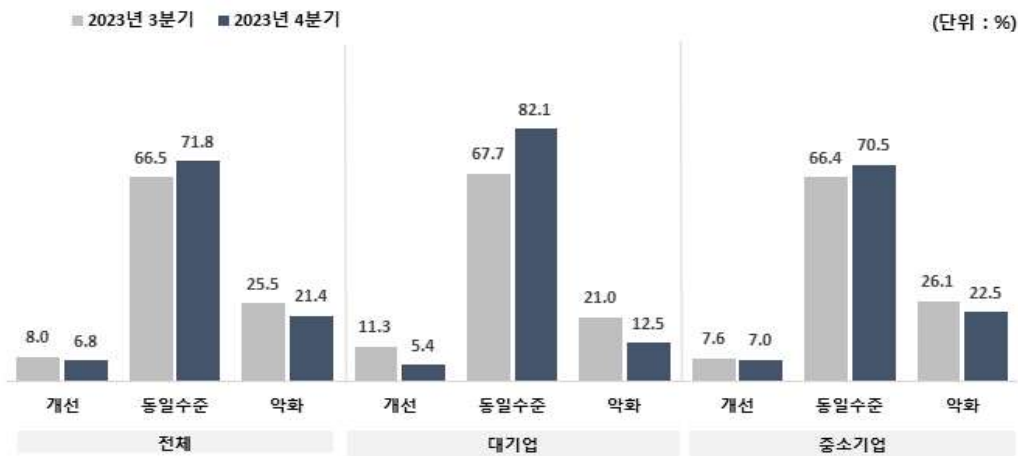
###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

#### 가. 수출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514개사)

수출업황 '개선'은 1.2%p 감소한 6.8%, '악화'는 4.1%p 감소한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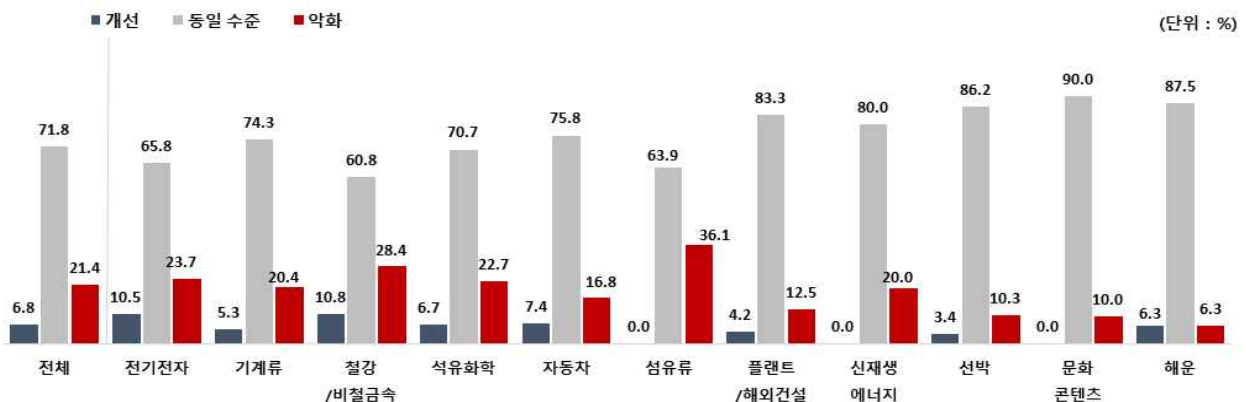
- 전기 대비 '개선' 응답은 1.2%p 감소한 6.8%, '악화' 응답은 4.1%p 감소한 21.4%로 두 응답률 모두 전기보다 감소, '동일 수준' 응답은 5.4%p 증가한 71.8%
- (규모별) 전기 대비 '개선' 응답은 각각 대기업이 5.9%p 감소, 중소기업은 0.6%p 감소해 대기업의 응답률이 더 많이 감소, '동일 수준' 응답은 대기업이 더 증가

#### 4분기 수출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 (산업별) '개선' 응답이 높은 산업은 철강(7.1%→10.8%), 전기전자(11.3%→10.5%), 자동차(7.1%→7.4%) 순, '악화' 응답이 높은 산업은 섬유류(40.5%→36.1%), 철강(28.9%→28.4%), 전기전자(20.0%→23.7%), 기계류(23.0%→20.4%) 순

#### 4분기 수출업황 평가 :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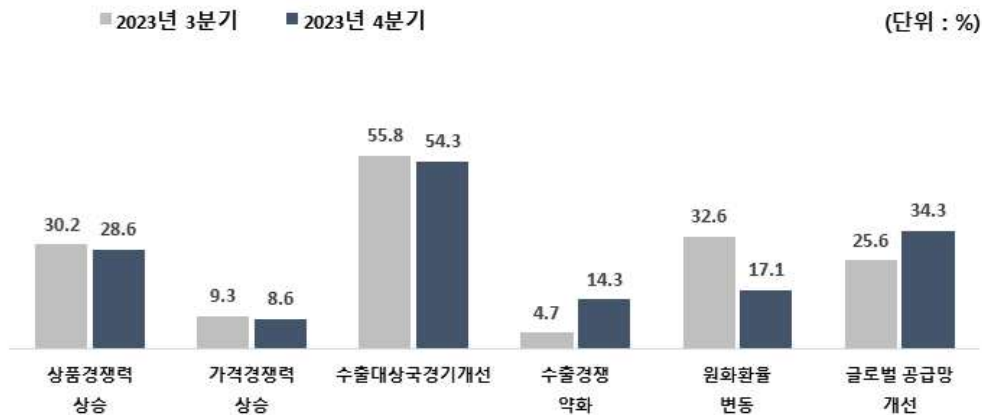


##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514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35개사, 복수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54.3%), '글로벌 공급망 개선'(34.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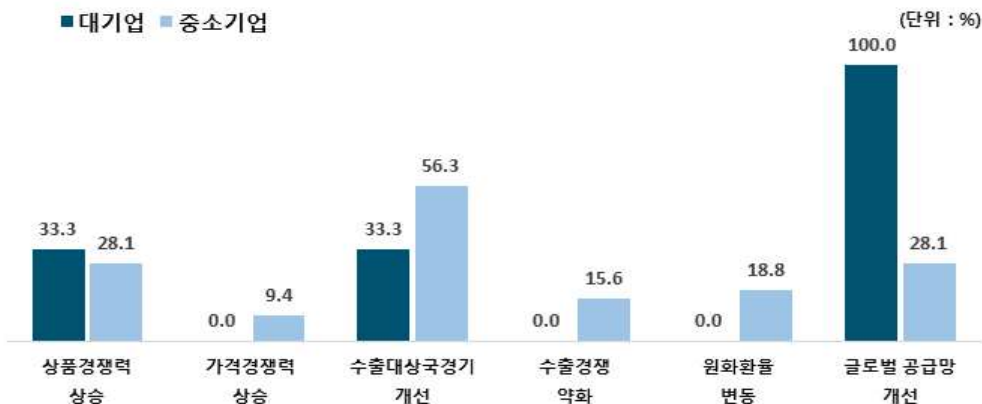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55.8%→54.3%)이 전기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최대 비중 차지, 공급망 문제가 점차 해소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개선'(25.6%→34.3%) 응답률이 증가하며 두 번째 비중 차지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은 수출지역이 중국(100%), 중남미(66.7%), 북미(55.6%), 동남아(50.0%) 등인 기업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상품 경쟁력 상승'(30.2%→28.6%)은 수출 품목이 플랜트/해외건설(100%), 선박(100%), 자동차(28.6%), 철강/비철금속(25.0%), 전기전자(25.0%)인 기업에서 증가

###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개선'(100%)을 가장 높게 응답했고,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56.3%)을 가장 높게 응답한 가운데, 그 다음으로 대기업은 '상품 경쟁력 상승'(33.3%)과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33.3%)을, 중소기업은 '상품경쟁력 상승'(28.1%)과 '글로벌 공급망 개선'(28.1%)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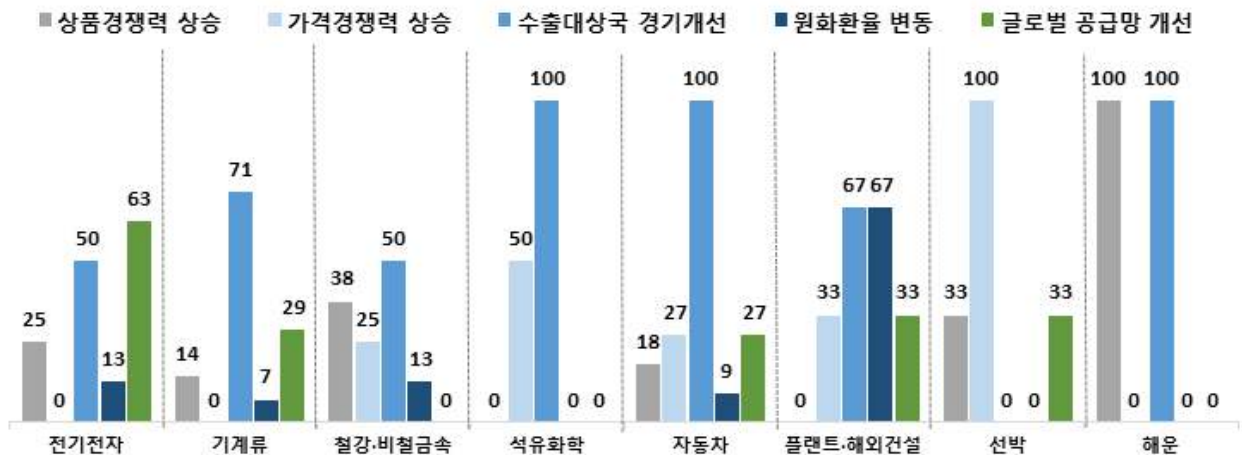
###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기업 규모별





- (산업별) 석유화학(100%), 자동차(100%), 해운(100%), 기계류(71%), 플랜트/해외건설(67%) 등이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 '글로벌 공급망 개선'은 전기전자(63%), 플랜트/해외건설(33%), 선박(33%), 기계류(29%), 자동차(27%) 등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상품경쟁력 상승'은 해운(100%), 철강/비철금속(38%), 선박(33%) 등에서, '가격경쟁력 상승'은 선박(100%), 석유화학(50%) 등에서 높게 응답

####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산업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원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	가격경쟁력 상	수출대상국 경 기 개 선	수 출 경 쟁 화	원 화 환 율 동	글로벌 공 개 로 급	별 망 선
전 체		28.6	8.6	54.3	14.3	17.1	34.3	
규모	대 기 업	33.3	0.0	33.3	0.0	0.0	100.0	
	중 소 기 업	28.1	9.4	56.3	15.6	18.8	28.1	
산업	전 기 전 자	25.0	12.5	75.0	0.0	0.0	50.0	
	기 계 류	16.7	0.0	66.7	50.0	0.0	16.7	
	철 강 / 비 철	25.0	12.5	37.5	12.5	25.0	50.0	
	석 유 화 학	20.0	0.0	40.0	20.0	20.0	40.0	
	자 동 차	28.6	14.3	42.9	14.3	28.6	28.6	
	플랜트/해건	100.0	0.0	100.0	0.0	0.0	0.0	
	선 박	100.0	0.0	0.0	0.0	0.0	0.0	
	해 운	0.0	0.0	100.0	0.0	100.0	0.0	
수출 지역	북 미	22.2	11.1	55.6	0.0	22.2	44.4	
	중 국	0.0	0.0	100.0	25.0	25.0	25.0	
	일 본	25.0	25.0	25.0	0.0	25.0	0.0	
	유 로 존	20.0	20.0	40.0	20.0	20.0	60.0	
	동 남 아	25.0	0.0	50.0	37.5	0.0	37.5	
	중 남 미	66.7	0.0	66.7	0.0	0.0	33.3	
	중 동	100.0	0.0	100.0	0.0	0.0	0.0	

주 : 전체 설문 514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35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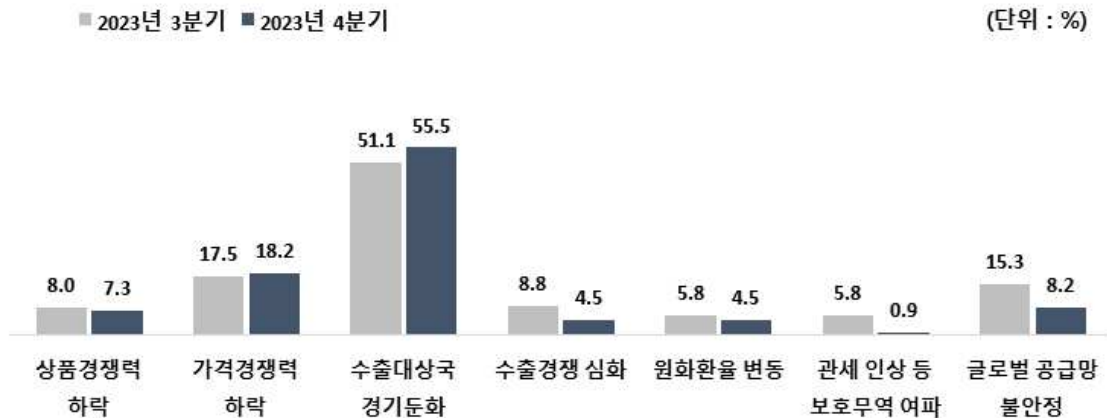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514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10개사, 복수응답)

'수출대상국 경기둔화'(55.5%), '가격 경쟁력 하락'(18.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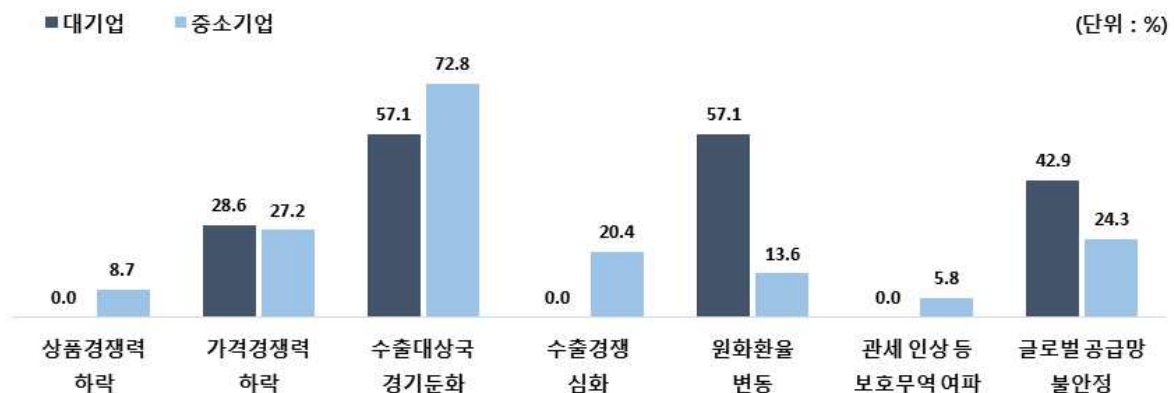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51.1%→55.5%)가 전기에 비해 **4.4%p** 상승하며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가격 경쟁력 하락'(17.5%→18.2%)도 전기보다 소폭 상승하며 두 번째로 많이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유로존(65.0%→91.7%), 중국(72.0%→85.7%), 북미(69.4%→74.3%)인 기업에서 많이 응답, 반면 동남아, 일본, 중동의 경우 전기 대비 응답 감소

####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57.1%)과 중소기업(72.8%)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대기업은 '원화환율 변동'(57.1%)도 같은 비율로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42.9%)을 응답
- 중소기업은 두번째로 '가격경쟁력 하락'(27.2%)을, 세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24.3%)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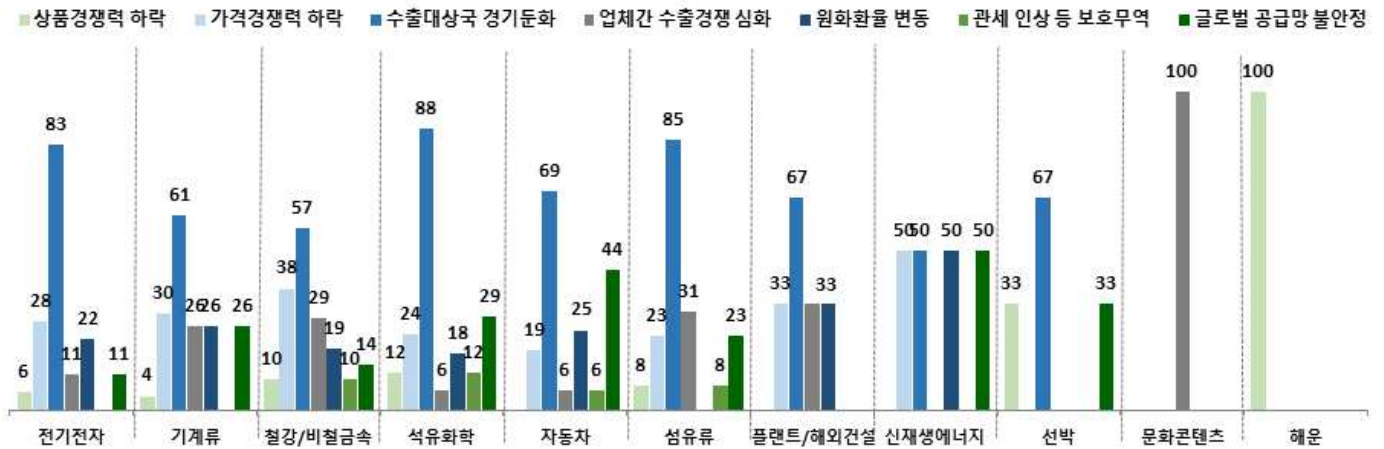
####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기업규모별





- (산업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석유화학(88%), 섬유류(85%), 전기전자(83%), 자동차(69%), 플랜트/해외건설(67%), 선박(67%) 산업에서 많이 응답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신재생에너지(50%), 자동차(44%), 선박(33%) 등에서 높게 응답
- '가격 경쟁력 하락'은 신재생에너지(50%), 철강/비철금속(38%), 플랜트/해외건설(33%), 기계류(30%) 등에서 많이 응답

####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산업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원인

(단위 : %)

구분		상 경 쟁 하	품 경 쟁 력 락	가 경 쟁 하	격 경 쟁 력 락	수 대 상 국 경 기 둔 화	수 경 심	출 쟁 화	원 환 변	화 율 동	관 세 인 상 등 보 호 무 역	글로벌 공 급 망 안 정
전 체		8.2	27.3	71.8	19.1	16.4	5.5	25.5				
규모	대 기 업	0.0	28.6	57.1	0.0	57.1	0.0	42.9				
	중 소 기 업	8.7	27.2	72.8	20.4	13.6	5.8	24.3				
산업	전 기 전 자	5.6	27.8	83.3	11.1	22.2	0.0	11.1				
	기 계 류	4.3	30.4	60.9	26.1	26.1	0.0	26.1				
	철 강 / 비 철	9.5	38.1	57.1	28.6	19.0	9.5	14.3				
	석 유 화 학	11.8	23.5	88.2	5.9	17.6	11.8	29.4				
	자 동 차	0.0	18.8	68.8	6.3	25.0	6.3	43.8				
	섬 유 류	7.7	23.1	84.6	30.8	0.0	7.7	23.1				
	플랜트/해외건설	0.0	33.3	66.7	33.3	33.3	0.0	0.0				
	신재생에너지	0.0	50.0	50.0	0.0	50.0	0.0	50.0				
	선 박	33.3	0.0	66.7	0.0	0.0	0.0	33.3				
	문 화 콘 텐 츠	0.0	0.0	0.0	100.0	0.0	0.0	0.0				
	해 운	100.0	0.0	0.0	0.0	0.0	0.0	0.0				
수출 지역	북 미	11.4	17.1	74.3	22.9	17.1	5.7	31.4				
	중 국	4.8	19.0	85.7	14.3	14.3	4.8	28.6				
	일 본	7.7	30.8	61.5	7.7	23.1	0.0	23.1				
	유 로 존	0.0	25.0	91.7	0.0	25.0	16.7	25.0				
	동 남 아	10.0	45.0	50.0	35.0	15.0	5.0	15.0				
	중 남 미	0.0	33.3	66.7	33.3	0.0	0.0	33.3				
	중 동	20.0	60.0	60.0	20.0	0.0	0.0	0.0				

주 : 전체 설문 514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10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 II. 2024년 1분기 수출 전망

### 1. 수출선행지수 추이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5p, 전기대비 1.8p 하락

- '24년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2.3으로 전년동기 대비 1.5p, 전기 대비 1.8p 하락
- 하락세를 보이다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상승했던 수출선행지수가 다시 소폭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면서 수출 경기 전환을 위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
- 선행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수출 경기 전환세는 유지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 대상국 경기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제조업 신규주문, 기계 수주액 등은 소폭 하락하는 등 지표들의 신호도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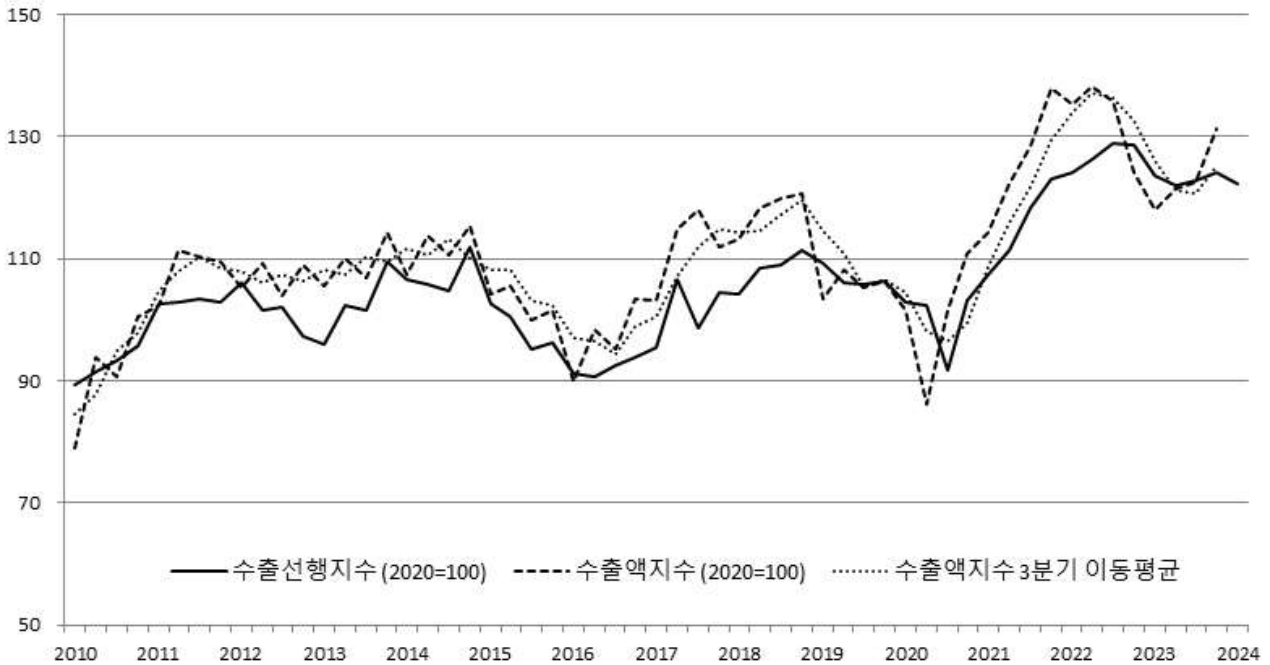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2				2023				202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선행지수	124.1	126.1	129.0	128.8	123.7	122.0	122.7	124.1	<b>122.3</b>
전년동기대비 증감(p)	16.8	14.6	10.7	5.8	△0.4	△4.1	△6.4	△4.7	<b>△1.5</b>
전기대비 증감(p)	1.2	2.0	2.9	△0.3	△5.0	△1.7	0.7	1.4	<b>△1.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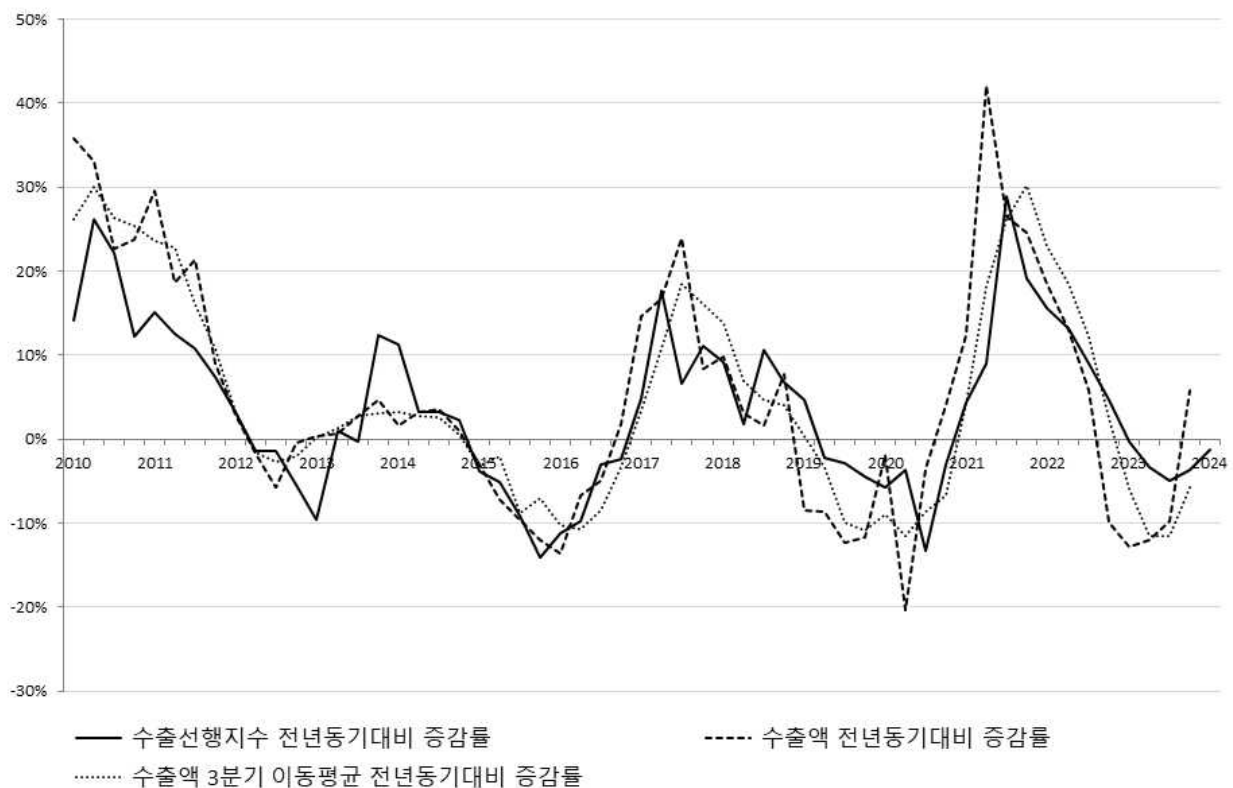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지수 추이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 미·중 경기는 회복세, 제조업신규주문은 보험세 등 지표 혼재, 경기 바닥 다지기 진행 중

- 수출대상국 경기 : 독일·일본 경기둔화는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영국 등은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도 회복세가 유지돼 전체 수출대상국 경기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은 확대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2.2('23.1Q)→3.6(2Q)→4.7(3Q)→**5.1(4Q)**

- WTO 상품무역지수 : 자동차 판매·생산, 전자부품 무역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준선(100)을 상회하는 100.7 기록, 무역 규모 회복세 시사

※ **Goods Trade Barometer**\*(WTO) : 96.2('22.4Q)→92.2('23.1Q)→95.6(2Q)→99.1(3Q)→**100.7(4Q)**

\* 2022년 6월=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무역 확장세, 하회하면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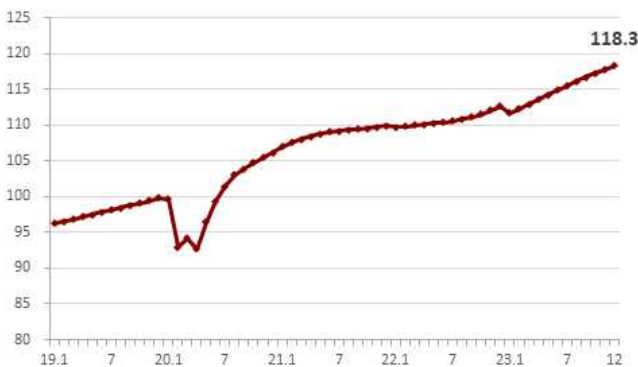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0.8p) 하락한 47.0 기록, 하반기 이후 월별 등락을 거듭하면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에 대해 3~6개월 선행성을 나타냄.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47.2('22.4Q)→44.60('23.1Q)→44.63(2Q)→47.8(3Q)→**47.0(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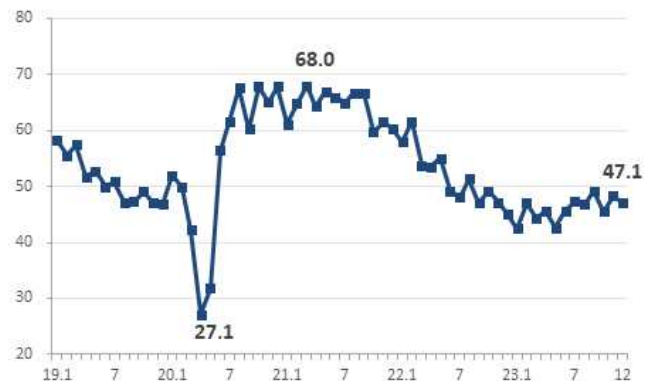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47.3('23.7)→46.8(8)→49.2(9)→**45.5(10)→48.3(11)→47.1(12)**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주 : OECD 선행지수 활용, 성장률 반영 (2020=100)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수출 물량 개선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8.9% 상승, 전년동기 대비로는 7.5% 하락했으나 하락폭 축소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20=100): 174.9('22.4Q)→175.6('23.1Q)→158.4(2Q)→148.5(3Q)→**161.8(4Q)**

※ 수출용 수입액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4.4('22.4Q)→△3.4('23.1Q)→△20.4(2Q)→△27.9(3Q)→**△7.5(4Q)**



- **가격 경쟁력** : 10월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1,361원) 수준으로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4분기 평균 환율은 전 분기(1,311원)보다 **0.8% 상승한 달러당 1,321원 기록**, 가격 경쟁력은 높은 상황
-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국내 증시 위축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 높은 상태 유지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359('23.4Q)→1,276('23.1Q)→1,315(2Q)→1,311(3Q)→**1,321(4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286('23.7)→1,319(8)→1,330(9)→**1,351(10)**→**1,310(11)**→**1,304(12)**
- **수출물가** : 유가가 전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물가도 하락하겠으나, 반도체 단가 상승 전환 등으로 하락폭은 제한될 전망
  -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04.0('22.4Q)→102.8('23.1Q)→99.6(2Q)→100.6(3Q)→**100.3(4Q)**
  - ※ 수출물가 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6.0('22.4Q)→△8.7('23.1Q)→△15.0(2Q)→△8.0(3Q)→**△3.6(4Q)**
- **D램**은 주요 업체 감산 및 수요 증가 영향으로 '23년 4분기부터 가격 반등이 시작됐으며, '24년에는 모바일 D램을 비롯해 주요 기업 투자 물량도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평균판매가격, Omdia) : 1.55('23.2Q)→1.47(3Q)→1.56(4Q)→**1.56P('24.1Q)**
-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상승 요인과 수요 둔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공존하면서 배럴당 70달러대 수준에서 보합세 유지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0.5('23.7)→86.5(8)→93.3(9)→**89.8(10)**→**83.6(11)**→**77.3(12)**→**77.7('24.1.19)**

D램 가격 전망



자료 : Omdia (2023.12월)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가격)

- **주요 산업** : 반도체는 지연됐던 기업 투자 수요가 살아나면서 단가 상승이 이어지고, 자동차·선박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요 산업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반도체**는 낸드플래시는 회복세가 더디나 모바일·PC 시장에서 재고 비축이 재개되고 HBM(고대



역폭 메모리), DDR5 등 고부가가치 D램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폭 확대 전망

- 자동차는 반도체 수급난 해소로 인한 대기 수요가 지난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은 전년보다 위축되겠으나 친환경차 시장 확대로 당분간 호조세는 유지, 증가폭은 축소

## 2024년 1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 전망

-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 대비 감소폭이 2분기 연속 축소되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2024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 전망

- 수출액은 전분기와 유사한 1,650억 달러 내외 수준이겠으나, 수출액이 크게 하락했던 2023년 1분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은 확대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1,590('22.4Q)→ **1,512('23.1Q)**→ 1,558(2Q)→ 1,571(3Q)→ 1,682(4Q)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10.0('22.4Q)→ **△12.8('23.1Q)**→ △12.0(2Q)→ △9.7(3Q)→ 5.8(4Q)

- 다만,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러우 전쟁 · 중동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 폭 축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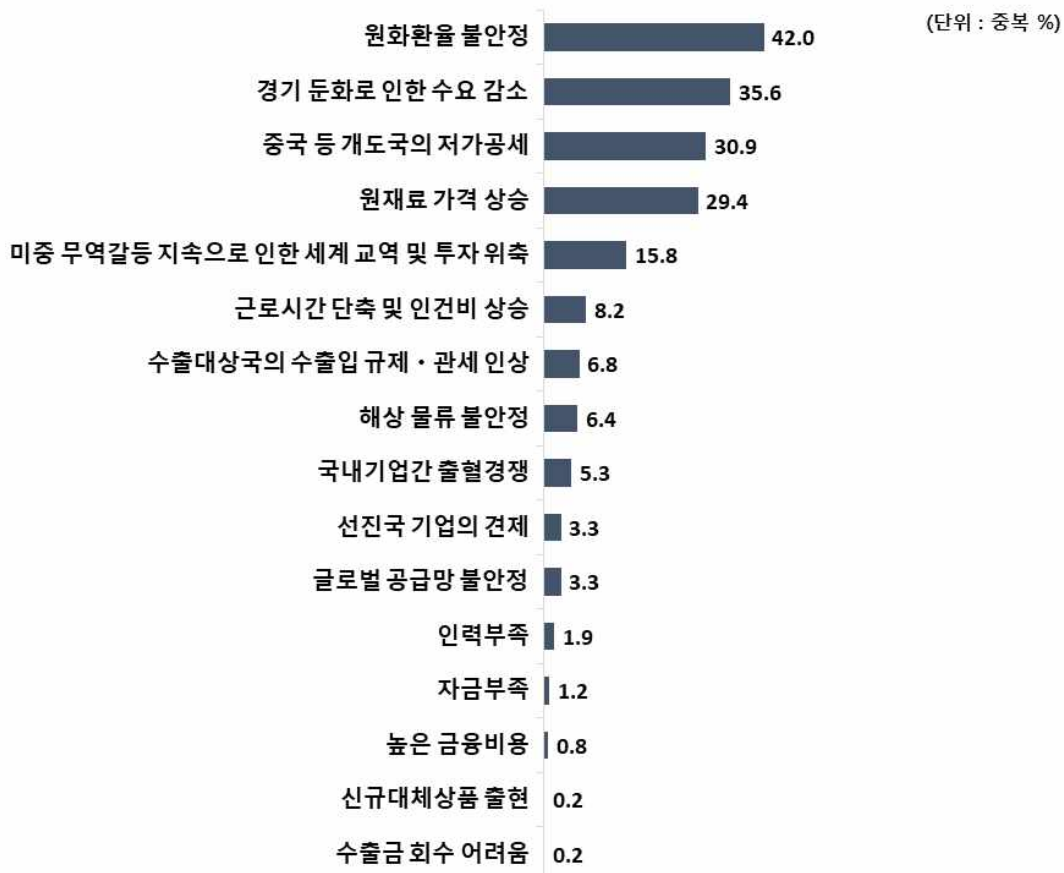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원화환율 불안정’(42.0%),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감소’(35.6%) 응답 최대

-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의한 ‘원화환율 불안정’(39.8%→42.0%) 응답이 전기 대비 2.2%p 상승하며 최대 비중 차지
-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감소’(32.7%→35.6%) 응답률도 전기보다 2.9%p 증가하며 두 번째로 많이 응답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39.8%→29.4%)은 전기보다 응답률이 감소했으나 4번째로 많이 응답

#### ‘23년 4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514, 1순위+2순위 복수응답)



- (산업별) ‘원화환율 불안정’은 해운(50.0%), 전기전자(46.1%), 선박(44.8%), 자동차(44.2%), 기계류(43.4%) 등에서,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감소’는 문화콘텐츠(70.0%), 섬유류(61.1%), 해운(43.8%), 석유화학(38.7%) 등에서 높게 응답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는 신재생에너지(60.0%), 섬유류(41.7%), 철강/비철금속(37.8%), 기계류(34.5%) 등에서 높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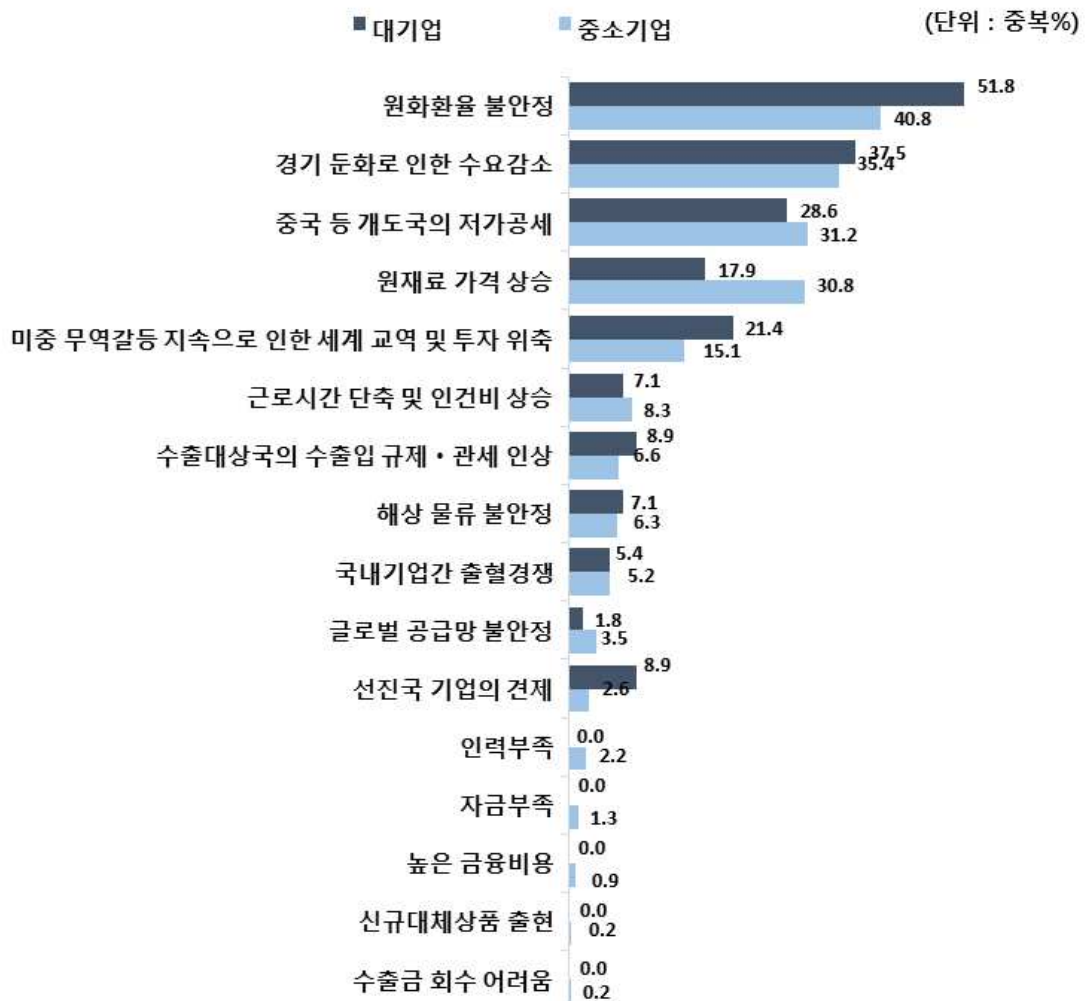




- (규모별) 대기업(32.3%→51.8%)과 중소기업(40.8%→40.8%) 모두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42.3%→32.3%)과 중소기업(42.3%→32.3%) 모두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 응답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는 중소기업(27.7%→31.2%)과 대기업(22.6%→28.6%) 모두 전기 대비 응답률이 증가해 세 번째로 높게 응답
- 반면 '원재료 가격 상승'은 전기 대비 응답률이 줄어들었으나 중소기업(40.1%→30.8%) 응답률이 대기업(37.1%→17.9%)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 '23년 4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514,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화 환율 불안정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	중국 등 개도국 저가공세	원재료 가격 상승	미중갈등 무역 영역 인한 교역위축	근로시간 축소 및 인건비 상승	수출 대상국 수출입 규제, 관세인상	해상물류 불안정
전 체		42.0	35.6	30.9	29.4	15.8	8.2	6.8	6.4
규 모	대 기 업	51.8	37.5	28.6	17.9	21.4	7.1	8.9	7.1
	중 소 기 업	40.8	35.4	31.2	30.8	15.1	8.3	6.6	6.3
산 업	전 기 전 자	46.1	30.3	32.9	27.6	22.4	6.6	5.3	3.9
	기 계 류	43.4	37.2	34.5	23.9	15.9	6.2	7.1	5.3
	철 강 / 비 철	43.2	29.7	37.8	25.7	17.6	2.7	8.1	12.2
	석 유 화 학	38.7	38.7	30.7	34.7	12.0	5.3	9.3	6.7
	자 동 차	44.2	28.4	25.3	25.3	17.9	13.7	7.4	12.6
	섬 유 류	27.8	61.1	41.7	27.8	11.1	0.0	8.3	0.0
	플랜트/해건	37.5	29.2	20.8	41.7	8.3	20.8	4.2	0.0
	신재생에너지	60.0	10.0	60.0	20.0	10.0	10.0	0.0	0.0
	선 박	44.8	31.0	17.2	51.7	6.9	10.3	3.4	0.0
	문화콘텐츠	40.0	70.0	20.0	20.0	0.0	20.0	10.0	0.0
	해 운	50.0	43.8	18.8	0.0	25.0	12.5	6.3	6.3
수출 지역	북 미	42.2	35.4	32.9	31.1	13.7	6.8	6.8	6.8
	중 국	37.8	38.8	28.6	29.6	24.5	8.2	6.1	5.1
	일 본	39.6	45.3	20.8	39.6	11.3	9.4	3.8	3.8
	유 로 존	45.2	30.6	33.9	22.6	22.6	6.5	14.5	8.1
	동 남 아	49.0	27.6	37.8	22.4	5.1	10.2	6.1	5.1
	중 남 미	42.9	42.9	35.7	42.9	14.3	7.1	0.0	14.3
	중 동	35.7	42.9	28.6	7.1	35.7	7.1	7.1	14.3

주 : 총 514개사 <북수응답: 1순위+2순위>



##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4년 1월 2일~8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514개 업체 (대기업 56개, 중소기업 458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	출	업	황
평	가	지	수
수	출	채	산
성	평	가	지
수	출	단	가
평	가	지	수
생	산	원	가
평	가	지	수
수	출	물	량
평	가	지	수
자	금	사	정
평	가	지	수

3.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20년=100 기준으로 산출 (2023년 4월 수정)
- 2023년 1월부터 OECD 경기선행지수가 OECD 국가 전체에서 G7 및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발표됨에 따라 변수 변화에 맞춰 추정 모형도 소폭 수정됨.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가 발표하는 G7 및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경기선행지수</li> <li>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li> <li>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li> </ul>
수출	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실효환율</li> </ul>
산업	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수요 기계수주액</li> </ul>